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배우고 알아라.
2.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가 간다.
3.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아는 것>은 ‘자본’ 이고, ‘돈’ 이고, ‘보물’ 이다.
4. 결국은 ‘아는 사람의 것’ 이다.
5. <땅에 묻힌 보물>도 결국은 ‘아는 사람의 것’ 이다.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면 자꾸 땅을 판다. 그러나 알면, 보물이 묻힌 곳만 파서 먼저 가지고 간다.
6. <시대>도 ‘아는 자’ 가 먼저 알고 ‘시대 역사의 주인’ 이 된다.
7. 메시아든지, 선지자든지, 어떤 자든지 알아야 된다. <아는 자>가 하게 된다. <모르는 자>는 못한다.
8.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알게 해 주신다. 자꾸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 쓰고,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많이 알게 된다.
9.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하면, 운명이 돌아간다.

10. 자꾸 깨닫고 알려고 해야 된다.
11. <아는 지식>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12. <지식>이란, ‘배우고 확인하고 행하는 것’ 이다.
13. <지식>은 배워야 얻어진다.
14. <지식>에는 ‘확인하는 지식’ 이 있다. 확인하라고 했어도 확인하지 않는 자들은 ‘지식에 대해 무지한 자들’ 이다. 어떤 것이라도 확인하고 행해야 된다. 본인이 꼭 확인해야 된다.
15. 행해야 ‘실제 확인된 지식’ 을 갖게 된다.
16. <행한 사람>은 ‘실제 겪어서 확인된 지식’ 을 갖게 된다. 가령 금인지, 아닌지 실제 분석해서 금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이는 ‘확인된 지식, 완전한 지식’ 이다.
17. 어떤 것이든지 ‘확인된 지식’ 을 가져야 된다.
18. <구원>도, <영의 세계>도, <주>도 배워야 알게 된다.
19.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급 구원’ 에 대해 알아야 된다. 곧, <구약 때>는 ‘구약급 시대 구원’ 에 대해 알고, <신약 때>는 ‘신약급 시대 구원’ 에 대해 알고, <성약 때>는 ‘성약급 시

대 구원'에 대해 알아야 된다.

20. <기독교>는 ‘성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른다. 왜? 그들은 <신약 역사>를 종착역으로 알기 때문이다. 고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없다. 끝나는 역사다.” 한다. <구약인들>도 “모세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누구를 섬기느냐.” 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육으로 쓰는 자’를 보내신다.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서 알게 하시고, 그에 따라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

21.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도 다르고, ‘구원의 차원’도 다르다. <어렸을 때 대하는 지식>과 <조금 더 컸을 때 대하는 지식>과 <완전히 성장했을 때 대하는 지식>이 다르다. <어렸을 때>는 사랑의 이성 관계를 하면서 대하지를 못한다. <성장기 때>도 그러하다. 그러나 <완전히 성장했을 때>는 이성 관계도 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종교>도 그러하다. 이는 ‘상식’이다. 그런데 <구시대인들>은 이 상식을 모른다. 그러니 예수님이 왔을 때도 “모세가 전부다. 더 이상 없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했다. 이 시대도 기성인들은 “우리는 형제다. 큰 자다.” 한다. 이들은 아직 ‘형제급, 자녀급’ 소리를 하면서 사랑권 세계에 못 들어온 자들이다. <결혼해서 사는 자들>은 다 ‘형제급, 자녀급’에 있다 올라온 자들이다. 지금은 결혼해서 사랑의 세계에 사는 때다. 기성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22. 결혼하면, 형제보다 자기 애인을 더 챙긴다. 자기 애인을 사랑

하지 않으면 뺏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혼을 안 했어도 안다. 왜? <시대의 메시아>를 만나서 사랑을 해 봤기 때문이다.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때가 됐는데, 형제를 더 사랑하면, ‘메시아’를 뺏긴다. 곧, <기성의 형제급 사랑>에 속하면 메시아를 뺏긴다는 말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현재 ‘기성 속’에 있다. 그러면서 “형제급 사랑 외에 더 이상은 없다. 형제급 사랑 외에 뭐가 더 있다는 말이나?” 한다. 가령 형제끼리 “형제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은 없다.” 하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는 “있다.” 한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다. 형제급 세계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우리 세계보다 더 높은 사랑의 세계가 있나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보다 더 큰 세계가 있나요?” 하면, 하나님은 “있다.” 하신다.

23. 하나님은 계속 차원을 높여 역사하신다. 가령 나무가 있다 하자. <나무>가 자체로 크는 것은 ‘그 자체 차원권’이다. <나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려면, 그 나무 씨를 다시 심어서 다시 나면, 사람이 손을 대서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50년, 70년씩 손을 대서 만들어서 아예 다른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도 그러하다. 그 자체 주관권에서 크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크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체 차원권’이다. <구약>도 ‘자체 차원’이 있다. 곧, 구약 안에서 4000년 동안 더 좋게 발달하는 것이다. <신약>도 2000년 동안 ‘자체 차원’으로 계속 발달했다. 신약 2000년 동안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신약 차원의 세계>다. <새로운 차원>이 되려면, 하나님이 ‘새로운 주인’을 보내서 그를 통해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를 만드셔야 된다.

24. 가령 식구들 중에서는 ‘애인’이 생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자체 차원의 세계>에서는 ‘자체 차원’만 높이지, 다른 이상적인 차원으로는 못 높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시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루셨다. <자체 차원>에서는 ‘사랑의 세계’를 못 이루기 때문이다.
25.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의 때, 성경에 말한 그 때’에 한 사람을 보내시어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기르듯 시대 따르는 자들도 기르시어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휴거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역사를 1000년 동안 계속 한다.
26. 식구들의 숫자는 7~8명씩 되지만, 애인의 숫자는 하나다. 그와 같이 구약이나 신약 때에 비해 ‘신부들 숫자’는 적다. 그러나 ‘애인’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누리고 사랑하고 사는데 충분하다. 하나님도 “충분하다.” 말씀하셨다.
27. <구약에 있는 종들>, <신약에 있는 자녀, 형제들>은 몇 명이 있어도 애인 하나를 못 따라간다.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도 크다.

◎ 하나님께 ‘하나님적 지식’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식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육신을 쓰고 시대를 말해주는
〈지식의 설교〉를 해 주고 있습니다.

28.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계의 천사들, 하늘의 사자들〉에게 투자하는 사랑을 다 해도 너 하나에게 투자하는 사랑만큼 안 된다.” 하셨다. 〈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신부, 사랑의 대상’로서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껴안고 사는 시대다.

29. 하나님은 ‘사랑의 목적’을 위해 수십 억 년 동안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종교 역사 6000년 만에 ‘마지막 사랑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니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

30. 〈구원〉도, 〈영의 세계〉도 ‘주’께 배워야 알게 된다.

31. 〈하나님의 지식〉은 ‘앞날을 아는 지식’이다. 고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앞날이 오기 전부터 알고 행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앞날이 오면 그때서야 한다.

32. 〈하나님의 지식, 앞날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5년, 10년 전부터 행한다.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그날이 와야 그때서야 행한다. 가령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 물건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나중에 시세를 보고 그때서야 산다. 〈아는

사람>은 그전에 미리 산다.

33. <아는 것>이 그리도 크다.

34. 알았으면, ‘시대 역사’에 동참했을 것이다.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영광스럽게 했을 것이다. 몰라서 망해 버렸다. 시대 역사에 동참치 못 했다.

35.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성약 역사에 온 자들>만 할 수 있는 말이다.

36. 늘 성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신부급, 애인급> 외에는 더 이상 없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 휴거 돼서 그 영이 영원히 하늘 나라에서 산다.” 하셨다. 성자께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신약 역사>가 시작 돼도 구약 역사가 운행되었듯이, <성약 역사>가 시작돼도 신약 역사가 계속 가고 있듯이, 이같이 역사도 계속 가게 된다.” 하셨다.

37. 신부급 외에 더 이상은 없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모두 알 때 ‘역사’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38. <지식>이 있으면, ‘실제’로 한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첨단으로 해 놓는다.

39. 대개 사람들이 아이큐(IQ)가 150, 170, 180 정도 되면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면 다른 것은 잘 못한다. <지

식의 세계>는 엄청나게 많다. <등산>도 많은 지식의 세계 중 하나다. <등산>에는 ‘절벽타기, 공중에서 뛰어내리기, 다람쥐처럼 바위절경 타기’ 등이 있다. 그리고 <자연 계시의 지식>, <대화 계시의 지식>도 많은 지식의 세계 중 하나다.

40.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여 행하면 다 맞고, 얻고, 성공한다.

41. <하나님의 지식>은 ‘최고 첨단의 지식’ 이다.

42.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구상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보아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보아라.

43. <하나님의 지식>은 ‘신적 차원의 지식’ 으로 더 이상 없는 지식이다. 그 지식과 지혜로 만들어 놓은 인생들을 보아라. 자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아라.

44. 한번은 하나님께 묻기를,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를 보면 그때는 지금과 달리 보기도 안 좋고, 짐승같이 생기고, 무섭게 생겼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만든다면 다른 것을 첨가해서 만들 수 있는 구상이 없으시냐고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없노라.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미 영원까지 내다보고 만들었다.” 하셨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각종 각색으로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이같이 만드셨냐고 하며 박수치고 감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감탄의 자극을 시키니, 뇌가 짜릿짜릿하다.” 하셨

다. 그러면서 성령님께도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냐고 하면서 하나하나 물었다. 하나님께 이러한 것은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물어보지 않냐고 하니,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다. <신부, 애인>이니까 ‘신부 세계, 사랑의 세계’에 대한 것을 모두 통틀어 물어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사람 연구만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제일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노라.”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여러 가지로 구상해서 만들었다. 사람의 손톱도 최고 아름답고 권위 있게 만들었다. 사람이 이 같은 형상의 손톱을 가지고 있으니 멋있지, 독수리 발톱이나 다른 짐승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멋이 없었을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상을 수십억 가지, 수백억 가지를 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고로 하나님께 그 지식에 감탄한다고 하며 이를 꼭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했다.

◎ <하나님의 지식>이 어떠한지

천재적인 머리를 돌려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차원, 자기 급대로 보기 때문에 그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이 말하면 모두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뇌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45. 하나님과 지식 일체 되면, 차원 높은 세계까지 꿰뚫게 된다.

46. <영적 지식>과 <육적 지식>이 발달돼야 한다.
47.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그 보낸 자로 뜻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해 주신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셨고, 그 전에는 선지자들과 중심 인물들을 통해 그 시대 급의 지식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
48. <인간의 지식>은 단조롭고 그 구상도 생각도 작지만, 하나님의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고, 무한대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다.
49.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보아라. 아름답고 신비하게 꾸며놓으신 황금 천국을 보아라.
50. 보아도, 들어도 ‘하나님의 높은 지식’을 자기 수준대로만 깨닫는다. 고로 배우고 ‘영적 차원’으로 보아라. <영>이 보고해야 더 높은 ‘이상’을 알게 된다.
51. 사람들은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의 것도, 타인의 것도 깨달을 뿐이다. 매일 배워라. 들어라. 연구하고 노력하여라.
52. <전도>도 ‘지식’이 있어야 잘하고, <신앙>도 ‘지식’이 있어야 차원을 높여 행한다. <사랑 차원>을 높여야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한다.

53. 세밀하게 배우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된다. <만물의 지식>, <예술의 지식>, <작품의 지식>, <존재의 지식>이다.

54.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그와 같이 다른 것도 그러하리라.” 하면 만 가지를 배운 것과 같다.

◎ 오늘은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